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별의
조절효과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제 해 기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별의
조절효과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제 해 기

인 준 서

제해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차 경 옥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양 수 진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허 명 옥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창업은 국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 대학 등에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개인의 창업의사는 창업관련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로써 비교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의 개인역량, 창업태도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창업의사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가 개인의 통계적 유의도 수준으로 t검증,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 3가지 개인 역량이 창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공변량구조 분석(LISREL)을 통해 조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가 설정한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 성인 남녀로써 창업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500명의 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조사 대상은 남녀 250명씩, 연령대는 2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0%씩, 30대와 40대는 각각 30%씩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성이 창업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고, 대졸, 대학원, 고졸 순서로 창업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가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이었다. 용돈과 가계소득의 경우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여성, 고졸, 나이가 어린 성인, 용돈이 적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창업 태도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업의사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남

성이 여성보다 창업의사가 높았고 부모가 창업을 권유하는 경우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은 경우, 창업 이유가 주변 권유인 경우, 아버지가 유통·서비스업에 종사중인 경우 창업의사가 높았다.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의 경우 대체로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의 창업의사가 높았다. 이 결과는 창업의사를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 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가 유통이나 서비스업이 아닌 분야에 종사하면서 창업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 개인 소득과 가계 소득이 낮거나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창업의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 개인 역량 특성 변수 모두 창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취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강할수록,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창업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창업의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 등 개인 역량 모두 창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여성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여성 집단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여성에게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8
1. 창업자의 개인역량	8
1) 창업자 성취동기	10
2) 창업자 자신감	12
3) 창업자 자아효능감	12
2. 창업에 대한 태도	15
3. 창업의사	17
1) 창업의사의 개념	17
2) 창업의사 관련 이론적 모델	18
3) 창업의사 영향 요인 분석	19
4) 창업태도와 창업의사	21
4. 창업의사와 성별	22
III. 연구 방법	29
1. 연구목적 및 연구 모형	29
2. 분석대상	29
3. 측정변수	30
4. 분석방법 및 절차	3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3
1. 조사대상자의 특성	33
2. 성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 차이 검증	34

3. 본 연구 구조 분석에서 측정모형 검증	36
1) 측정변수 타당성	36
2) 측정모형 적합도	38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38
5. 창업의사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40
V. 결론 및 제언	4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1> 본 연구 모델의 측정 도구 요인 분석 결과	31
<표2> 성인의 특성(N=500)	33
<표3> 성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의 차이 검증	35
<표4>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와 집중타당도 검증	37
<표5> 잠재변수들 상관관계와 판별 타당성	37
<표6>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38
<표7>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39
<표8> 측정 모형의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 비교	40
<표9> 구조 모델에서의 경로 계수 차이 검증	41

그림 목차

<그림1> 본 연구모델	28
<그림2> 창업의사 영향 요인 구조 분석 결과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창업은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국가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또 다른 생계 수단이다. 창업의 중요성은 조직이나 국가 경제력에 활력을 미치며 국가나 지역이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경기 침체와 개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와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구직자에게도 중요하다(육창환, 2015). 잠재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 국가경제 발전과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창업이 중요하다(오해동, 최지연, 노전표, 2016). 창업활동은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Wennekers, Sander(2005)는 2만 달러를 기점으로 창업활동과 1인당 GDP와는 U자형의 관계가 성립함을 밝혔다. 선진국들 포함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업가 교육, 창업촉진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업활동은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함에 틀림없다.

창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맞게 된다. 창업에 있어서 창업가는 사업가적 기질이나 적성에 따라 창업의 성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완재, 정화영, 2007).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5년 이후에도 실패하지 않고 생존할 확률이 3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20% 정도 만이 살아남고, 80%는 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창업 관련 연구에서 개인 역량이나 개인 특성의 영향력과 관련한 연구는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며,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분하는 독특한 개인 특성에 관심을 갖아 왔다. 예를 들면, 개인 역량 또는 성취동기, 자신감 등이 대표적인 창업 관련 개인 특성이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한 역량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

기 위한 성취동기를 갖게 된다. 또한 자신감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창업은 자신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서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상표, 변충규, 하환호, 2015). 결국 창업에 대한 개인역량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써 창업 하도록 동기를 부여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창업 기회를 찾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창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창업의사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창업에 있어서 창업자가 주변상황이나 여건을 토대로 스스로 그 가능성을 지각할 수 있을 때 창업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아효능은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의사에의 영향 요인,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검증되어 왔다. 심리적 변수로는 위험인지, 통제 의 소재, 성취욕구, 자율욕구, 개인적 통제욕구 등의 영향력이 검증되어 왔다. 결국 창업자 개인 역량은 창업 관련 정보탐색, 창업계획 및 실행수립, 창업의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역량이 탁월한 창업자는 창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창업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독특한 특성, 높은 성취욕구, 내적 통제부위, 성격, 위험감수 성향, 모호성 감수성향 등의 특성과 창업 의사나 행동 사이의 관계를 밝혀 왔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창업에 대한 자신감, 성취동기가 창업 의지 또는 창업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Yoon, 2004). 창업의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창업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hoi, 2012). 먼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내재적 통제 위치, 위험추구 성

향, 자기확신, 성취욕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성 등이 있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역할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창업의 사회적 인식, 창업문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다(김성환, 복경수, 박재춘, 2015).

윤방섭(2004)은 창업의사의 결정 요인으로서 개인 특성 요인과 환경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개인 특성 요인으로 개인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였다.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창업을 잘 할 수 있다는 평가를 의미하며 동기와 성과를 예측하는 변수라고 밝혔다. 자신감은 창업의 노력, 지속성,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창업의 선택과 목표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우진(2013)은 성인들의 자아실현과 혁신성,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창업의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Lee(2000)는 창업의사 요인으로써 개인적 특성 특히 성취욕구, 내적 통제부위,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취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04)은 사업지향성,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네트워크 환경, 안정지향성 등이 창업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Choi(2012)는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그 중심적 요인이 창업의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김수진, 한정화, 이상명, 2016).

한편 오랜기간 동안 창업자의 태도는 창업 관련 여러 의사 결정이나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영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행동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정 행동에 대해 개인이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그 행위를 수행할 의사 또한 더 높아진다(송경숙, 2014).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지 상태와 창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인 감정 상태, 그리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준비 및 실행 등 행동적 상태를 종합한 개념이라고 하였다(Ha, Byun, 2014). Sung, Kim(2011)은 창업역량이 창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의 성격 특성과 역량이 창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대수, 성장수, 2017). 결론적으로 창업의사는 창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하규수, 한정화, 2010). 창업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인간의 행동은 계획된 인지적 과정이며, 행동을 유도하는 의사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의사를 설명한다(Ajzen, 1991; Krueger Jr et al., 2000). 창업의사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가가 되려는 개인의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이다(김문성, 이준우, 2017).

행동 의사를 창업으로 연결하여 창업의사를 설명한 연구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그 실증의 주요 근거가 된다(Krueger Jr, Reilly, & Carsrud, 2000). 특정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 TPB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 일수록,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가 더 클수록 하려고 하는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더 강해진다(Ajzen, 1991).

창업의사는 기회를 결정하는 욕망, 실현가능성, 성향의 인식에서 비롯되어 진다(Lee et al, 2011).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창업의사라 할 수 있다(Kim, 2012).

한편,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성별이다. 다만 성별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성별에 따라 창업 관련 창업목표나 창업전략, 태도나 의사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 보다 취업기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불리하여 창업의사가 남성 보다 높을 수도 있다. 창업은 일과 가족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여성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의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 및 명예퇴직 증가 등 경제적 변화 속에서 소규모 가족기업 창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소규모 여성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창업의 많은 부분이 가족기업 형태의 여성 창업이 많음을 추측케 한다..

한편 여성 창업 동기는 심리적인 특성, 라이프 스타일, 환경적 요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여성 창업을 밀어내는 요인은 욕구불만, 직무불만족, 이전 직무의 지루함과 사직 등이다. 또한 야망 실현 욕구, 주위 인정, 지식과 기술의 사용,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 연속성, 자신 삶에 대한 통제 등은 여성 창업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여성 창업가들은 남성 창업가들보다 창조성, 위험 감수성, 가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유리하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여성들만의 창의적이고 평등한 사고방식에 대한 심리·역량적 특성이 창업의사 및 창업행동에 영향 미친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대로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의 창업의사가 남성보다 낮다는 견해도 있어 왔다. 여성들의 특성 중 감정, 온화, 민감, 수동, 비논리, 고정관념 특성은 남성들보다 기업가적 성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여성은 리더십, 자율성, 위험 감수성향, 변화 준비, 의존성, 지구력 등이 부족하다고 밝힌 연구도 존재하고 있다. 반면 여성도 부에 대한 동기, 독립성, 기회포착 능력이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성취욕구, 자율성, 인내심, 목표 지향성, 자신감, 리더십 등에서 여성이 남성과 차이가 없다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정리·종합하면 창업동기 및 창업의사와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여성 밀어내기 Push 요인)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역량이 창업 의지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이 결정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창업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의사는 창업과정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창업과 창업의사와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의도적 행동 모델이 이론적 틀이 되고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의사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Fishbein, Aizen의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해 설명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행동을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사는 계획된 행동 실행을 예측하는 변수이다.

지금까지 창업 관련 개인적 역량, 창업 태도, 창업의사, 창업 관련 선행연구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창업자의 개인 역량이 창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된다. 창업자는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창업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업자의 개인역량 보다는 연령, 소득, 교육 등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창업자의 연령, 교육, 성별, 창업자의 경력 등에 초점을 둔 반면 심리적 역량인 성취욕구, 자신감,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감, 창업의사와의 영향력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 개인역량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 3가지 성인의 개인적 역량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창업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창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본 연구가 설정한 모델에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창업 관련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둘째, 개인 역량 즉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이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셋째, 3가지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관계를 모델로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 함에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 등 개인 역량 변수,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창업의사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되, 창업 정책이나 교육 분야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게다가 개인 역량이 창업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어 향후 창업 정책이나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의 방향 설정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서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역량과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창업행동 관련 일련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창업의 성패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창업가의 역량, 기질,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창업가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창업의사,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계속 되어 왔다(반성식·장성희, 2014). 창업의사는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로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행위적 태도를 의미한다(윤방섭, 2004; 김은경, 강영숙, 2016). 창업은 계획된 행동이므로 창업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등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의사나 창업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개인의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는 창업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사료된다.

한편, 창업은 창업의사에 관한 이해는 창업 관련 전반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창업의사는 창업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창업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재명, 강신기, 2015).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창업에 대한 연구들은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역량이 창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창업자의 성취욕구,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창업에 대한 태도 등 창업에 대한 인지 상태와 연결하여 창업의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1. 창업자의 개인 역량

역량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써 지식, 기술, 태도의 결합된 구성 요소, 즉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역량은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구교준, 김성배, 윤종현, 2012). 따라서 창업자들이 역량을 높인다는 것은 창업 관련 기능에 대한 긍정적 행동 또는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통 역량을 가진 사람은 삶을 이끌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창업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역량은 경험, 훈련 또는 코칭을 통해 변경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하다. 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창업가가 보유해야 할 역량이 있고 창업역량이 학습 및 지식 생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관심사인데 보통 학습과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간주하고 있다(강병승, 2020).

그런데 창업을 설정하는데 창업자의 개인 역량 특히 적극적인 사고능력, 일에 대한 성취욕구, 자아 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창업자의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은 창업의사 및 창업성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의사 및 성과는 창업자의 개인 특성, 창업자 자질 특성과 연관될 것으로 추측된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높은 성취지향성, 자신감, 효능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해(2006)는 한국, 일본, 중국 창업가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창업자의 기업가적 특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모험심, 호기심, 결단력, 추진력, 도전정신, 실패 인내력 등이었다. 그는 자신감이 강할수록 창업의사가 큰데 이는 창업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감이 강한 집단은 창업의 긍정적 효과를 중시하고 자신감이 강할수록 창업위험 지각의 정도가 낮다고 밝혔다.

창업가의 개인 특성으로써 성취욕구, 통제위치, 자율욕구, 창의성, 계산된 위험감수성, 모호성의 수용, 그리고 자신감 등이 활용되어 왔다. 최명화, 조성숙(2014)은 위험감수성향, 창의성, 성취욕구, 통제성의 위치가 기업가적 성향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자의 가족배경,

교육수준, 가치관, 연령, 직장경력, 창업 동기, 닮고 싶은 다른 창업자(role model) 등의 특성은 일반인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설병문, 홍효석, 2013).

장병승(2020)은 기업가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은 창업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나, 경영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정부 지원은 창업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나, 가족 지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게다가 그는 기업가의 경영 역량은 기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 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권오범(2016)은 성취욕구와 자아효능감이 선택요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자아효능감은 창업 시도, 성공태도, 창업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창업자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어떤 것들을 신속하게 잘 이행하려는 심정적 성향이다. 박동수(2000)는 성취욕구의 6가지 유형으로 i) 어려운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ii) 물질적인 사물, 인간 아이디어를 조작하며 조직화하려는 의욕 iii)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iv)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v)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vi) 경쟁에서 능가하려는 의욕을 포함시켰다.

창업자의 역량 특성인 성취동기는 비전, 자기효율성, 창업목표 및 전략 등을 내포하는데 창업의사 및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은 대체로 적절한 위험감수성향과 내재적 통제성향을 가진다. 창업자의 성취동기는 창업동기, 창업의사, 실패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대처노력, 창업

의사에 중요한 요인임이 실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박영배, 윤창석(2011)은 창업가는 높은 성취욕구를 보이고 있고 위험 극복 의지가 높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책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창업자는 독립의지가 높으며, 성취감이 높고 창업자의 성취 욕구는 창업기회 발견,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은 책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통적 주장이었다. 예를 들면 김영선(2015)은 성취욕구는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원동력으로써 창업자의 경우 성취욕구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높은 성취욕구는 성공적인 창업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 주장하였다. Hornaday, Aboud(1981)는 성취욕구가 높은 최고 경영자에게서 이같은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밝히고 있다. 최고 경영자가 성취욕이 높을 경우 그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도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목표달성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최양림, 2013). 정영호(2013)는 창업자의 성취욕구가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권오범(2016)은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대체로 성취욕구와 창업 관련 행동이나 성향 사이에 정(+)의 관계, 높은 성취욕구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자의 공통적인 특성,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성취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연우, 2008).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 또는 창업의사에 성취욕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취 욕구는 창업가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높이고 높은 성과를 달성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창업자들의 행동은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

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창업 성과에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강영욱, 하규수, 2011).

2) 창업자 자신감

자신감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써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신감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여, 최적의 의사결정, 실제 효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므로 창업의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자신감은 개인이 창업에서 얻는 긍정적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감은 과업수행을 위한 노력, 지속성,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창업의사, 창업 목표 및 창업 전략수립 및 이행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창업을 시작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창업자의 자신감 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오상훈, 하규수(2013)는 환경과 심리적 특성이 창업자의 자신감을 둘러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선자, 변상해(2017)는 주변의 배경과 환경, 자신감이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신감은 창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실패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창업자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흔히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정도, 가치에 대해 믿고 있는

바를 의미한다. 자아효능감은 사회 학습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는 자아효능감이 소극적이고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타인행동, 상황과 복잡하게 상호작용 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자아효능감은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 경험, 사회적 설득, 자신의 생리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에 영향 받아 생성된다. 그런데 자아효능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하고, 교육, 경제 환경, 성격, 가치 등 내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자아효능감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행동의 선택, 노력의 수준 및 지속성, 장애나 실패에 대한 극복 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고, 동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andura, 1977). 또한 학습, 경험 및 반응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성취와 건전한 번영은 자아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오해동, 최지연, 노전표, 2016).

자아효능감의 개념은 사회인지 이론, 합리적 행위이론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창업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자아효능감이 창업기회의 탐색과 창업위험감수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윤방섭, 2004).

특히 창업 분야에서의 자아효능감은 창업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가의 자아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확신으로 창업을 위한 인지적, 기억 과정,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창업에 있어 효능감은 기회인식, 위험불확실성 관리, 혁신과 같은 창업가로서의 지녀야할 핵심 활동 및 능력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홍중혁, 2007). 다시 말해, 창업자의 자아효능감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이장우, 장수덕, 2001). 자아효능감 개념을 창업에 연

관시킬 때 자아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자아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창업의사가 높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강한 자아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창업판단이나 행동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업의사가 강하고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영욱(2013)은 창업자가 자아효능감이 높으면 창업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고 창업 목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 결국 예비창업자로서 자아효능감이 부족할 경우 창업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 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 종합할 때 심리적 특성 중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 등 자아효능감은 창업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임준철, 윤정구(1999)는 창업을 시작할 지의 결정에 자아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창업은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 관련 지식 점수가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는 숙달된 경험, 기업가적 정신, 사회적 지원, 자아효능감이 높을 때 창업의사가 형성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아효능감은 창업 장애 극복 요인으로써 동기 부여 및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창업에 있어 효능감은 창업을 지속할 수 있는 즉 창업 지속 의사나 새로운 창업의사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 실행 이후 창업지속 가능성이 높다. 기업가적 자아 효능감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창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창업 수행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다.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창업의사에 긍정적일 것이다. 윤방섭(2004)의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창업 의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방섭(2004)은 창업가의 자

자아효능감은 위협에 대한 경직성이나 무력감을 줄여주고, 더 노력을 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육창환, 전인오(2014)는 자아효능감이 창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 창업 층에 자아 효능감이 미치는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자아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즉 개인의 선택, 목표, 감정적인 반응, 대처, 노력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오해동, 최지연, 노전표, 2016). Rauch, Frese(2007)는 자아효능감이 창업의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환호, 변홍주, 박후동, 변충규(2015)의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창업 시도 성공태도 및 과정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태도는 보통 창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인 감정 상태로 볼 수 있다(류준호, 2011). 태도란 어떤 것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이다. 즉 태도는 어떤 것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부정적 평가이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상태로서 긍정적 태도는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준비 및 실행 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서 창업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평가이다. 잠재적 창업가들의 창업의사는 창업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창업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하환호, 변충규, 2014). 따라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하환호, 변충규, 2015).

태도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에 선제적 요인으로 창업 관련 연구에 활용되었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정도, 창업을 높게 평가하는 정도, 창업 관련 숙련, 지식, 경험을 인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것은 성공적인 기업가에게 중요한 능력인데(장성희 외, 2014) 이때 창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장성희 외(2014) 연구에서 창업 태도는 i) 목표 달성 성공에 대한 태도 ii) 목표 달성이나 행동 수행의 실패에 대한 태도 iii) 성공 또는 실패 활동이나 과정에 대한 태도로 정의 되었다. 즉 시도성공, 시도실패, 시도과정 측면의 3가지 태도가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과 합리적 행동이론 변수들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창업가는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성창수, 김진수, 201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등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창업가는 창업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성창수, 김진수, 2011).

개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주변 창업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창업한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창업과정에 친숙할 것이기 때문에 창업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창업 태도는 창업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반성식 외, 2013b). 즉 실제 창업 행동으로 일어나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창업위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창업을 흥미 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창업은 위험감수를 전제로 한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 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닌 경우 창업의사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의 창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는 창업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창업의사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창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창업실패 두려움을 없애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아효능감과 자신감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김상표, 변충규, 하환호, 2015).

김상표, 변충규, 하환호(2015)는 자아효능감과 인내력이 작용하여 청년들의 호의적인 창업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창업의사

1) 창업의사의 개념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써, 창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창업의사는 창업경험과 창업행동을 향한 창업가의 마음상태로서 스스로 고용되는 형태(self-employed)를 말한다. 창업의사는 창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 개념이다. 창업의사는 창업의 의지적, 행동적, 실행적 속성을 말한다.

창업의사는 창업에 대한 관심과 행동 유발 심리적 상태로써 창업의사가 높은 경우 취업보다 창업에 더 호의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활동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창업의사라고 정의한다. 또한 창업의사는 창업개시 활동과 외적 영향간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창업의사를 이해하는 것은 창업 관련 모든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창업의사는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창업의사는 창업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창업관련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인식되는 창업의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

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남희, 2016).

2) 창업의사 관련 이론적 모델

창업의사가 창업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창업의사를 설명하는 모델이나 이론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최명화, 조성숙, 2014). 창업의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첫째, 이벤트 모형(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SEE)이다. 둘째,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다.

첫째, 창업 이벤트 모형(SEE)에 따르면, 구체적인 창업의사는 ① 창업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바람직성 ② 주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을 뜻하는 지각된 실현가능성 ③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개인의 특질을 가리키는 행동성향으로 구성된다(이현숙, 백민정, 2012; Shapero, Sokol, 1982). 이벤트 모형은 창업의사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각된 희망성, 지각된 실현성, 행동성향을 제시한 모델을 말한다. 이 모델은 Ngugi et al(2012)에 의해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모델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이후, 창업의사 모델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또한 변용되었다(김재형, 2018; 이재석, 이상명, 2015).

둘째,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의 세 가지 요소를 중요시 한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의사가 행동의 실행 여부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 인정되어, 창업 행동과 창업의사에 적용되었다(최대수, 성장수, 2017). 행동에 대한 의도는 미리 확립되지 않으며 선행된 구성개념들의 특정행동에 의해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Ajzen, 2002).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의사는 계획된 행동의 실천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의사는 주관적 태도와 기준, 통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정인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김재형, 2018; 이재석, 이상명, 2015; Ajzen, 1991). Boyd, Vozikis(1994)는 창업의사에 있어 개인적인 확신을 뜻하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창업의사 및 창업과 관련된 의지적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창업의사 모델에 행동적 실행적 속성이 추가되어 왔다. 의지적 속성에 초점을 둔 관점에 따르면 창업의사란 취업보다 창업에 호의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창업의사란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로써 창업의사 결정에 대한 실천적 행동 성향에 의해서 설명된다.

3) 창업의사 영향 요인 연구

창업의사에 관련된 요인 또는 영향 요인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역량 접근 요인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특성과 역량은 창업자의 태도, 창업의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창업에 대한 연구는 창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역량이 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역량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학습된다. 창업 정책은 창업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창업가들 역량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 창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창업자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역량, 지식,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업자 자신의 개인적 특성, 특히 성공적인 창업자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험, 재능,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

어 왔다(최양림, 2013).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주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성창수, 김진수, 2011),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는 개인의 성격상의 특질 측면에서 창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들을 찾아 이를 일반인과 비교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Gartner 1989).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성취욕구, 자신감, 자아효능, 위험감수성, 자율성 등이 논의되어 왔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가정환경, 교육, 창업경험, 창업관련 교육 등이 중요시 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적, 개인적 특성에서 창업가와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창업성과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강병오, 2011).

1970년대 후반부터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공적인 창업자들 특징으로서 성취욕구, 통제위치, 및 위험 감수성향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국내외 많은 실증 연구들에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중 자율성, 자신감, 성취욕구 등의 특성은 창업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윤방섭 2004; 박시사, 강성일, 2007). 최근에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창의성(황보운, 2010), 자율성과 진취성(성창수, 김진수, 2011), 자아효능감(윤방섭 2004; 박시사, 강성일, 2007)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최양림, 2013; 권오범, 2016).

한편, 창업의사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개인의 자신감의 중요성도 인정되어 왔다. 능력에 대한 신념은 자아효능의 개념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Urban, 2015).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아효능감도 역량의 또 다른 측면이다(Bandura, 1982). 창업은 개인의 자신감, 능력, 성취욕구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의사는 창업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창업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 높은 창업 자아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성취의지가 높아 창업의사가 높아진다(한정희, 김정호, 2013).

창업에서 자아효능감은 창업을 시작하려는 의도, 행동, 위험 감수, 성공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선행연구자들은 창업 효능감이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효능감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아 왔다. 이외에도 창업자 특성이 기업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연구되어 왔다. 창업 및 성공에 대한 개인 특성, 동기 부여(자아효능, 동기 부여, 자율성, 혁신성)가 교육, 다양한 유형의 업무 경험(관리, 리더십 또는 기업가 경험)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강병승, 2020).

4) 창업태도와 창업의사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선되어야 하며(Yoon, 2012), 창업에 대한 행위는 창업 의사를 전제로 하는 행동이며, 창업의사는 실제 창업이라는 결과로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태도, 의사 및 활동과의 관계는 Ajzen(1985; 1991)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사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의사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jzen, 1985; 1991). 반성식, 장성희(2014)의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창업의사를 형성하고, 창업의사는 긍정적인 창업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에 대한 의사는 미리 확립되지 않으며 선행된 구성 개념들의 특정행동에 의해 경험적으로 결정된다(양승용, 2017). 임지현(2010)은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영향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Liñán(2004)의 연구에서는 창업에 관한, 흥미, 재능, 가치, 태도 등 창업에의 호의적 성향이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jzen(1991)의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견해가 창업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üller(2008)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 중 창업가가 있을때,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모가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들도 창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창업의사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man, Kennedy, 2003).

임지현(2010)은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수, 김진수(2011)는 창업태도가 창업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창업의사에 창업태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주형, 박병진, 2014; 최진숙, 이남희, 황금주, 2019; 안승권, 2016; 김진수, 2011; 임지현, 2009).

하규수, 윤백중(2011) 연구에서는 창업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사에 긍정적, 창업 실패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이남희(2016), 임지현(2010)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성장수(2011)는 창업태도가 창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

4. 창업의사와 성별

여성들의 학력이 고학력화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 창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들 직장생활 장애요인인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담, 사회적 편견 등의 환경은 직장 취업보다 여성 창업을 증가시킨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취업의 폭이 좁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하여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가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고학력의 여성일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현실적으로 다시 재취업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같은 여성들이 처한 가정환경적 요인은 여성들이 조

직내 재취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양육과 가정생활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재취업 보다는 창업을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남성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Hwang, 2008). 또한 기업내 존재하는 유리천장 요인으로 여성들이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창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한국 및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비록 기혼 여성들이 창업에 대해 호감을 가질지라도 그들이 재취업 의도가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창업가들은 남성 창업가들보다 복잡한 상황에 있으며 비금전적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가세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 창업가들과 남성 창업가들 간에 인간관계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 반면, 창업의 목표설정, 경영스타일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여성 창업가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이며, 창업 이전에 직장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 창업자들은 소규모 가족기업, 서비스업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여성 창업 기업의 진출 분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여성 창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키 위해서는 금융, 세제,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창업태도, 동기, 창업의사 등과 관련해서 성별의 차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역량이 창업의사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창업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되고 있다. Sexton, Bowman(1990)은 남성이 자율성과 변화에 대한 가치점수가 낮게 나온 반면, 여성보다 위험감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Buttner, Rosen(1989), Fischer

(1993)는 남성과 여성 창업자 간에 경험이나 욕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Miner(1983)는 위험 감수성이 높은 남성은 기회추구형 창업이 유리하고, 여성은 자율성이 강한 장인형 기업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윤성욱, 서근하(2003)는 남성 창업자의 성공률이 1.8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행연구 결과들은 성별에 따라 경험과 심리적 특성,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활발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기업의 90%(125만 744개)가 소상공인으로 생계형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전문 분야 창업이 극소수라는 것이다(여성기업백서, 2017).

미국의 경우 남성 창업이 여성보다 두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의 진로 관심사에 대한 연구 결과 여성 청소년들의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남성 청소년들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iona, 2007). 특히 ‘기업가적 자아효능감(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자신감, 이하 자아효능감)’이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는 관심 수준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입증됐으며, 흥미롭게도 그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Fiona, 2007). 그런데 그는 자아효능감의 영향력은 여성 청소년의 기업가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발견했다.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있다는 인식이 청소년 남성들보다 청소년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ona, 2007).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최상의 직업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으며(Bandura, 1992),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기업가적 노력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Greene, & Crick, 1998 ; Fiona, 2007). Bird(1988)는 창업의사는 사회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됨을 밝혔다. Langowitz & Minniti,(2007)는 ‘여성들은 불리한 수준으로 자신과 사업 환경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Heilman, Chen(2003)은 지원 부족이 여성의 창업의사에 더 중요한 장벽이라고 보고하였고, Thébaud (2010)는 역량의 부족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더 중요한 장벽이라고 주장하였다(Shinnar et al, 2012). 창업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이고 (Ahl, 2006),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사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Marlow, 2002).

그러나 상반되는 연구결과나 연구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 창업은 새로운 경제 창출 및 국가 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 창업의사를 연구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성의 창업이 생계형에 치우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자아효능감과 창업의사 개념이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이나 창업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유경, 2018).

최근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퇴직 연령 단축 현실에서 다수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촉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태영, 2017). 현대 정부의 사회적 관심은 여성창업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여성 창업의 성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핵심 인력으로 대두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관점이다(황선주, 2017).

이은경(2014)은 대전, 충청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사회적 기업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취욕구, 기업가 지향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 기간이 길수록 개인 경력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진 외(2008)의 연구에서도 경력단절 기간이 길수록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정희, 변상해(2016)의 연구에서 직업교육과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의사, 재취업 욕구, 직업교육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의사와 재취업 욕

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진숙, 이남희, 황금주, 2019).

여성이 남성보다 사업에 대한 사회적 위험인지 수준이 낮고, 사업에 대한 태도에서 호의적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창업의욕은 남성에 비해 낮으며 여성 창업이 여러 어려움을 안고 실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이 과거보다 점차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 창업가는 남성 창업가에 비해 창조성, 위험감수성, 가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여성 특유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적 특성이 여성의 창업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황미애, 2007).

여성 기업실태 조사(2013) 결과 여성이 창업을 결심하는 이유는 성취감,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났다. 여성 대부분이 결혼-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가 노동시장에 복귀 하는 이유는 성취감과 사업운영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것이다. 여성 창업가의 경우 자신의 과거 직무경험 분야의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소매점 및 전문영역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성 창업가는 새로운 시장 개척 보다는 기존 형성된 분야의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기업, 여성 창업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여성이 가진 상황, 사회적 인식, 환경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성 창업가는 여성기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통념 등에서 남성들과 다른 장애요인이 지적되어 왔다. 여성은 약한 사회적 유대관계, 금융기관, 창업 관련 기관, 정부 지원기관 등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적다(김영옥, 임희정, 2006). 이같은 이유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도 남성 보다 불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고 인적 네트워크인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주로 조달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남희, 2016).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여성의 창업의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은 결혼, 출산을 겪으며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과 가정 내에서 역할갈등에 시달린다. 이런 부분에 비취 볼 때 재취업 보다는 창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여성의 역할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다. Goffee, Scase(1992)는 여성의 자영업 선택이 일과 가족의 역할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매력적이라고 주장했다(이남희, 2016).

여성의 고학력 추세, 경제활동 증가 상황에서 여성의 창업도 증가해야 하나 여성의 창업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생계형이 아닌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여성의 창업은 6% 수준에 그친다(천혜숙 2016). 여성의 생계형 창업이 많은 이유는 출산, 육아,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가계경제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와 가사 병행을 위해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이 저조한 원인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및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천혜숙, 2016, 양현봉 외 2014).

그러나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서면서 창업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핀테크 등 일부 분야의 경우 감성적이고, 꼼꼼하고 차분한 성향의 여성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유경, 2018).

김유경(2018)은 기업가적 자아효능감이 창업의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기업가적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정부가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여성의 창업의사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진숙, 이남희, 황금주(2019)는 여성 인적 네트워크, 여성차별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증가와 성장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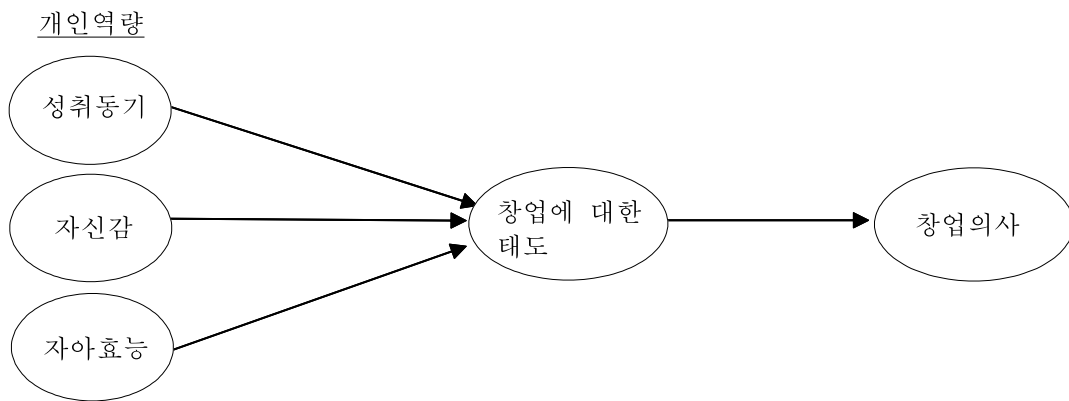
서 다양한 창업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개인 역량과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가 조사대상 성인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둘째, 개인 역량은 독립변수로, 창업에 대한 태도는 매개변수로, 창업의사는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델에서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모델 변수들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1> 본 연구 모델



2. 분석대상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이다.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성과 여성을 절반씩 선정하고 20대와 50대 이상은 20%씩, 30대와 40대는 각각 30%씩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 창업과 관련한 개인 특성이나 역량,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2015년 6월, 1개월간 예비설문 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예비설문 조사를 수행한 이후 부적절한 질문, 문장오류 등을 발견한 이후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만들었다. 최종 설문지는 ‘담천 소비자연구 후원회’ 후원을 받아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성인 500명 대상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3. 측정변수

본 연구의 중요 독립 변수인 성인 개인의 역량은 12개 질문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8개 질문,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3개 요인은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으로 구분되었다. 성취동기는 3개 질문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이들 질문들 간 신뢰도 분석결과 질문항간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66로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자신감 역시 3개 질문으로 선정하였는데 질문항간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은 2개 질문으로 선정하였고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나 적절하다고 하겠다.

한편 매개변수로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표1>처럼 3개 질문을 선정하였고, 이 질문들 간의 신뢰도 조사 결과는 .78로 나타났다. 끝으로 창업의사는 3개 질문으로 측정하였는데,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계수값인 Cronbach 알파 값은 .86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본 연구 모델의 측정도구 요인분석 결과

변수	질문	요인 적재치	Eigen값	Cronbach's α
개인역량 성취동기	나는 내가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실천한다.	.77	15.93	.66
	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이라는 평판을 받고자 노력한다.	.87		
	나는 새롭게 변화하는 생활을 추구한다.	.64		
자신감	나는 확실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70	20.12	.75
	내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자신이 있다.	.72		
	내가 결정한 일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71		
자아효능	나는 나의 장래가 밝다고 확신한다.	.73	11.89	.75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75		
창업태도	나는 창업실패에 대해 두렵다.	.80	16.50	.78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지 매우 두렵다.	.76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66		
창업의사	언젠가는 창업할 것이다.	.86	34.85	.86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한다.	.88		
	다른 사람에게도 창업을 권유할 것이다.	.82		

참조: 창업태도는 이후 통계분석에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로 처리

4.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프로그램(Ver. 22.0) 그리고 AMOS(Ver.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성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창업의사가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통해 파악한 후, 집단별 차이 분석, 즉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 변수들 간 영향 관계를 검증

키 위해 공변량구조분석(Structural Covariance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측정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측정 척도의 타당도 평가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먼저 수행한 이후 공변량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때, 조절효과 검증 이전에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을 하였고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 등을 기준으로 창업행동이 유사한 집단을 유형화한 후 이들 집단의 창업 관련 특성, 개인 역량 등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창업 관련 특성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하고자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창업특성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유형화 시킨 이후 이들 집단별 성인의 여러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빈도수의 차이 검증을 위해 카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인 역량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 성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500명으로 남성이 약 50%, 여성이 약 50%였고 대다수가 기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수도권이 약 60%, 비수도권이 약 3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고졸이하 약 23%, 전문대포함 대졸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약 67%,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약 8%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20%, 3·40대가 각각 30%, 50대 이상이 20%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비전문직이 약 4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의 경우 약 18%, 미취업의 경우 약 33%였다.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200만원 이하가 약 38%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은 401~600만원 이하가 약 32%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이 약 23%, 201~300만원 약 17%, 301~400만원 약 16%, 200만원 이하 약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성인의 특성(N=500)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250 (50.0)	결혼여부	미혼	190 (38.0)
	여성	250 (50.0)		기혼	310 (62.0)
학력	고졸이하	119 (23.8)	연령	20대	100 (20.0)
	대졸	337 (67.4)		30대	150 (30.0)
	대학원이상	44 (8.8)		40대	150 (30.0)
		50대이상		100 (20.0)	
거주지역	서울수도권	304 (60.8)	직업	비전문직	267 (53.4)
	비수도권	196 (39.2)		전문직	65 (13.0)
		미취업		168 (33.6)	
월평균 개인소득 (만원)	200만원이하	193 (38.6)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200만원이하	54 (10.8)
	201~300만원이하	104 (20.8)		201~300만원이하	85 (17.0)
	301~400만원이하	76 (15.2)		301~400만원이하	84 (16.8)
	401~600만원이하	87 (17.4)		401~600만원이하	161 (32.2)
	600만원초과	40 (8.0)		600만원초과	116 (23.2)

2. 성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사 차이 검증

조사대상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태도와 창업의사의 차이를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여 <표3>에서 파악하였다. 차이검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 부모 창업권유, 학력, 연령, 용돈, 가계소득 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고, 대졸, 대학원, 고졸 순서로 창업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가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이었다.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의 경우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한편 창업의사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 부모 창업권유, 연령, 창업이유, 아버지의 직업, 용돈,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의사가 높았고 부모가 창업을 권유하는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창업이유가 주변 권유인 경우, 아버지가 유통·서비스업에 종사중인 경우 창업의사가 가장 강하였다. 개인소득의 경우 300만원에서 600만원사이 즉 중간 수준의 개인소득을 가진 집단의 창업의사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가계소득의 경우 201만원에 400만원 사이에 있는 경우 창업의사가 가장 높았다.

<표3> 성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의 차이 검증

변수	구분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		
		평균값	t또는F	Duncan	평균	t또는F	Duncan
성	남자	8.58	2.56**		10.97	2.37*	
	여자	7.90			10.62		
부모창업 권유	권유함	8.39	2.45*		11.63	2.17*	
	권유안함	9.68			10.54		
학력	고졸이하	9.25	2.11*	c	11.50	.23	
	대졸	7.00		a	10.71		
	대학원이상	8.34		b	10.76		
연령	20대	6.56	4.20**	a	10.92	3.14*	a
	30대	8.45		b	10.73		a
	40대	9.25		c	13.00		b
	50대	11.50		d	14.67		c
창업이유	생활·부축적	8.28	.73		10.52	1.97*	a
	자아실현·사회기여	8.93			10.79		ab
	취업실패대안	8.10			11.28		ab
	주변권유	8.11			12.00		b
창업주저 이유	자금부재	8.28	.73		10.90	1.12	
	생각해본적없음	8.93			10.93		
	실패부담	8.10			10.98		
	주변만류	8.11			10.23		
아버지 직업	창업운영	8.74	.48		10.37	2.08*	a
	회사원	8.16			10.82		a
	전문직·공무원	8.15			10.98		ab
	유통·서비스	8.71			12.42		b
개인소득	200만원이하	6.97	4.82***	a	10.70	2.74**	b
	201~300만원이하	7.74		ab	10.26		b
	301~400만원이하	9.73		ab	11.23		c
	401~600만원이하	8.00		ab	11.00		c
	600만원초과	10.14		b	9.57		a
가계소득	200만원이하	7.52	2.60**	a	10.94	2.04*	a
	201부터~300만원	7.71		a	11.09		b
	301부터~400만원	7.44		a	11.57		b
	401부터~600만원	8.52		ab	10.68		a
	600만원초과	9.50		b	10.20		a

* p < .05, ** p < .01, *** p < .001

3. 본 연구 구조 분석에서 측정모형 검증

1) 측정변수 타당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파악하였다. 이때 우선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선정된 측정항목들에 대해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먼저 잠재요인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요인부하량이 크고(약>.50)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0 이상이고, 잠재요인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가 .70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이학식, 임지훈, 2011). <표4>에 제시한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모델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인 β 의 요인부하량은 .50이상 절대 값이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측정변수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집중타당성의 기준은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값(AVE)인데 이들 수치는 <표4>와 같다. 본 연구의 경우 개념신뢰도(CR)가 0.7보다 크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5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표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집중타당도 검증

변수		비표준화요인 부하값(B)	표준화요인 부하값(β)	t값	SMC	AVE(평균분산 추출값)	CR(개념 신뢰도)
개인역량 성취동기	성취동기1	1.03	.59	6.89***	.35	0.51	0.74
	성취동기2	1.67	.93	6.18***	.87		
	성취동기3	1.00	.48	-	.23		
자신감	자신감1	.83	.58	8.43***	.34	0.59	0.81
	자신감2	1.12	.81	9.99***	.66		
	자신감3	1.00	.73	-	.54		
자아효능감	자아효능1	1.33	.87	8.38***	.77	0.66	0.79
	자아효능2	1.00	.69	-	.48		
창업태도	창업태도1	1.00	.82	-	.67	0.61	0.82
	창업태도2	.75	.72	12.92***	.53		
	창업태도3	1.03	.90	14.95***	.82		
창업의사	창업을사1	1.00	.85	-	.72	0.62	0.83
	창업을사2	.84	.63	9.33***	.40		
	창업을사3	.86	.74	10.20***	.55		

개념신뢰도(C_c)=(\sum 표준추정치)²/[(\sum 표준추정치)²+(측정변수의오차항)] ≥ 0.7518C
 평균분산추출값(AVE)=(\sum 표준추정치²)/[(\sum 표준추정치²)+(측정변수의오차항)] ≥ 0.5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써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비교하였다. <표5>에 제시한 바처럼 구분산추출값(AVE)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도가 적정함을 확인했다.

<표5> 잠재변수들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구성 변수	√AVE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감	창업태도	창업을사
성취동기	0.715	1				
자신감	0.770	.05(.003)	1			
자아효능감	0.814	.08(.008)	.23(.054)	1		
창업태도	0.781	.10(.011)	.09(.009)	.18(.033)	1	
창업을사	0.790	.05(.003)	-.05(.003)	-.07(.006)	-.18(.035)	1

참고: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커야 하는데 비교·편의를 위해, AVE값에 제곱근 값을 제시함.

2) 측정모형 적합도

본 연구 측정모형의 적합성 평가 기준은 일반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증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원소간 평균잔차(RMR), 모집단원소간 평균잔차(RMSEA) 등 이다. 적합도 판정 기준은 기준은 GFI, AGFI, CFI, IFI 값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RMR, RMSEA가 .08보다 작아야 한다. 게다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χ^2 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1 과 3 사이에 속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6>처럼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수치인 GFI=.93, AGFI=.89, IFI=.94, CFI=.94, RMR=.05, RMSEA=.06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χ^2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2.06($\chi^2 =138.049/ df=67$)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부합지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6>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X ² (Chi-square)	df	p	CFI	GFI	AGFI	IFI	RMR	RMSEA
측정모형	138.049***	67	.00	.94	.93	.89	.94	.05	.06

*** p < .001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개인 역량과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표7>과 <그림1>처럼 공변량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본 연구 모델의 적합도 판정을 $\chi^2 =151.699$, RMSEA= .06, CFI= .93, GFI= .92, AGFI= .88, IFI= .93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판정기준은 RMSEA는 .05 이하, NFI, CFI, GFI, IFI는 .90 이상이다. <표7>에서 이 기준에 적합도는 충족되고 있다.

한편,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그림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성인의 개인역량 특성 변수 모두 창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강할수록,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창업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록 창업의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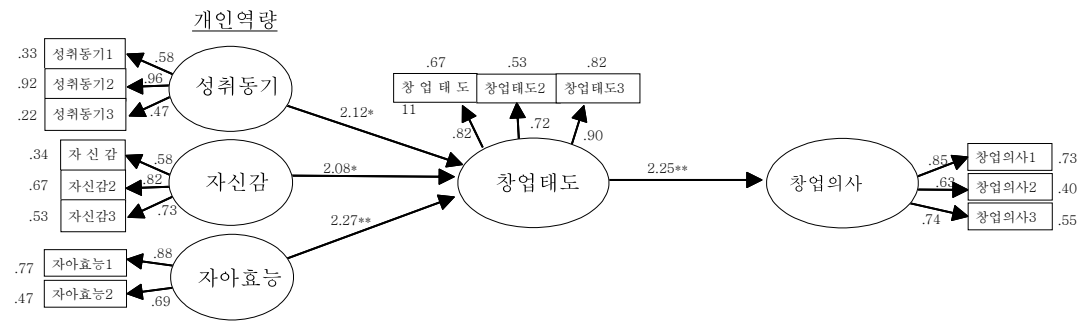
<표7>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t값
성취동기 → 창업태도	2.26	2.12	2.74*
자신감 → 창업태도	2.53	2.08	2.19*
자아효능감 → 창업태도	2.46	2.27	2.73*
창업태도 → 창업의사	2.16	3.25	3.61*

GFI=.92, AGFI=.88, IFI=.93, CFI=.93, RMR=.06, RMSEA=.06, Chi-square(df)=151.69(70)**

** p < .01, *** p < .001

<그림2> 창업의사 영향 요인 구조분석 결과



** p < .01, *** p < .001

5. 창업의사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 창업의사에 차이가 있는지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제 조건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방법은 두 집단의 측정항목의 요인부하량 매트릭스에 대한 제약모형을 비제약모형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결과 <표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카이제곱 값의 증가치($\Delta \chi^2 = 12.21$, $df=9$)가 통계적으로 유의($p < .05$, $df=9$, 유의 χ^2 값= 16.9) 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즉 두 집단 간 측정도구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8> 측정모형의 비제약 모형과 제약모형 비교

	카이제곱값	자유도	RMSEA	AIC	CFI
비제약모형	208.78	134	.045	360.78	.94
제약모형	220.99	143	.045	354.99	.94
비제약모형-제약모형	$\Delta \chi^2=12.21$, $\Delta df=9$				

성인의 개인 역량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집단 모형 간 상호 대응되는 경로계수가 동일한지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두 집단의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전혀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을 기준으로 대응되는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제약 모형을 만든 이후 두 모형 간 카이제곱 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 구조 모형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감 3유형의 개인 역량 모두 창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여성 성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9> 구조모델에서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경로	남성	여성	χ^2	df	$\Delta \chi^2$	Δ df	p
비제약모델(기준모델)	β	β	223.40	140			
성취동기 → 창업태도	.07	.25	229.52	141	6.11	1	.013
자신감 → 창업태도	.21	.50	226.46	141	3.06	1	.045
자아효능감 → 창업태도	.10	.34	227.62	141	4.21	1	.030
창업태도 → 창업의사	.15	.24	226.49	141	3.09	1	.047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개인 역량과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사가 조사대상 성인의 다양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 개인 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에 대한 태도는 매개변수로 창업의사는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공변량 구조 모델을 만들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셋째, 본 모델 변수들의 영향력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남녀 성인 5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은 t-검증과 분산분석(ANOVA) 검증을 통해 달성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 목적은 공변량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학력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대졸, 대학원, 고졸 순서로 창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이었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었다. 개인 소득과 가계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은 창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창업의사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 의사가 높았고 부모가 창업을 권유하는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창업 이유가 주변 권유인 경우, 아버지가 유통·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경우 창업의사가 가장 강하였다. 이 결과는 창업 의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 젊은층, 저소득이나 고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시급함을 알려준다. 또한 부모들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본인소득과 가계소득의 경우 대체로 중간 수준인 집단의 창업의사가 긍정적이었다.

셋째,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개인 역량 특성 변수 모두 창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취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강할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창업 관련 의사결정이나 태도에 개인의 역량 변수가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창업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창업의사가 강함을 알 수 있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여러 노력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넷째,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인의 개인 역량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여성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것과 관련 분야에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있어 개인 역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창업 관련 교육기관이나 창업 관련 정책이 예비창업자들의 개인 역량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교육 목표를 세워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업 정책이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성취감, 자신감, 자아효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관련 내용의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성별 조절 효과가 나타난 것을 반영하여 개인 역량 교육에서 여성에게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겠다.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또한 창업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대상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적극적 창업 의사를 높일 수 있는 여자

대학 지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여성 창업자 모델 교육 등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감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성 대상 각종 교육,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예비창업여성들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과 교육 현장에서 성취동기, 자신감, 자아효능 등을 높이는 내재적 동기부여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의사에 중요한 요인인 예비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부모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 유형과 창업 권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 대상 기업가 정신 또는 사업자적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겠다.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에 중요한 심리적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창업교육, 창업관련 내재적 개인역량 강화, 자기주도적 교육기법 적용, 창업교육 전문가의 육성을 통한 창업교육, 창업의 일상화, 각종 다양한 창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 역량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이 분야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의사에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으므로 다양한 창업 정책이나 교육이 성별에 따라 특별화된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본 연구결과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자의 개인역량 특성을 찾아내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창업이 우리사회와 개인의 경제생활에 긍정적이라는 전제하에 창업의사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인 역량 특성별 그리고 성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 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선자, 변상해(2017).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4), 85-96.
- 강성일, 박시사(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강영욱, 하규수(2011). 창업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 대회 논문집, 41-67
- 김상표, 변충규, 하환호(2015). 미래지향 시간관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모호성 인내력의 매개효과. 경영컨설팅연구, 15(4), 47-56
- 권오범(2016).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및 배경적 특성과 가맹본부 선택요인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한정화, 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김동진, 엄태성, 변광인(2009). 잠재창업자의 직업 성격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외식·조리 전공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5(1), 67-78.
- 김상표, 반성식, 조동환, 박종해(2009). GEM Data를 이용한 여성창업 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1-20.
- 김성환, 복경수, 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우영(2001). 남녀 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

논집, 24(2), 1-34.

김유경(2018).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 강영숙(2016). 노인준비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5), 105-115.

김주희(2012). 서비스 근로자의 심리적 자본과 창업의지 및 성공자신감.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김홍(2014). 대학생의 직업성격유형이 창업의지 및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5), 255-265.

나중덕, 김승호, 최탁열(2004). 여성 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특성,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26(1), 174-201.

류준호(2014). 창업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1998 ~ 2013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51-67.

박시사, 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박영배, 윤창석(2001).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 정신과 벤처연구(JSBI), 3-34.

박지유, 양해술(2014).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97-107.

반성식, 장성희(2014). 창업태도와 인식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GEM data를 이용한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생산성논집, 28(4), 405-431.

반성식, 장성희, 정지연(2009). 여성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1-20.

- 방중혁, 박상문, 신중경(2014). 예비 청년창업가들의 핵심 성공요인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247-254.
- 백윤정(2005). 여성 창업가의 배태조직경험과 사회자본, 그리고 직장가정갈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20(2), 175-203.
- 서정해(2006).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중일 대학생의 의식, 경영교육논총, 43(1), 153-171.
- 설병문, 홍효석(2013). 창업자 특성과 사업기회의 상황 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1), 19-28.
- 송경숙(2014). 외식산업 창업속성이 창업 과잉자신감과 창업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481-495.
- 양승용(2017). 콘텐츠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업 강좌 만족도, 창업 강좌 효과, 창업태도 함양이 콘텐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 11(8), 377-384.
- 양인숙(2005). 여성창업의 성공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지, 3, 131-147.
- 오해동, 최지연, 노전표(2016).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홉스테드 문화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35-48.
- 오혜미, 이창영, 김진수(2014). 여성창업가의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특성이 창업동기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2), 45-60.
- 육창환, 전인오(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국내 창업 멘토링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661-676.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05.

- 이남희(2016). 경력단절 여성 특성과 여성 네트워크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지원 정책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석(2003).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컨설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5(3), 139-157.
-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45-64.
- 이우진(2013). 대학생의 직업선택 동기가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3), 113-124.
- 이윤석(2017).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대학생 창업의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5), 304-323.
- 이윤준, 정기철(2015). 창업의사·창업시기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영학회 통합 학술발표논문집. 2357-2377.
- 이재명, 강신기(2015).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pp.151-163.
- 이장우, 장수덕(2001).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의 관점,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3(4), 23-49.
- 이준범(2019).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15.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22(1), 121-146.
- 정용희, 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적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비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15(4), 41-53.
- 최대수, 성장수(2017). 정보기술역량과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의 관계에 관한

-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6(1), 27-39.
- 최명화, 조성숙(2014).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226-241.
- 최진숙, 이남희, 황금주(2019). 경력단절여성의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4), 113-132.
- 하규수, 김도현, 김대호(2010).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가 창업 및 사업 유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8, 263-288.
-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2009). 잠재적 창업가의 사업실패 부담감과 환경요인이 창업 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하규수, 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2011(s), 85-99.
- 하규수, 한정화(2010). 여성의 사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0(8), 1-36.
- 하환호, 변충규(2014). 긍정적 인지편향이 창업 시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4), 145-153.
- 하환호, 변충규(201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 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4), 167-175.
- 하환호, 변충규(2016).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1-8.
- 하환호, 변홍주, 박후동, 변충규(2015).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 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2015(3), 65-72.
- 한정화, 백윤정(2003). 여성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5(3), 329-355.
- 한정희, 김정호(201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

연구, 26(6), 2777-2797.

Brockhaus, R. H. (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C. Kent, D.Sexton, and K.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Brockhaus, R. H. and Horwitz, P. S. (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D. L. Sexton &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Crant, J. M.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individual competence and attitudes on entrepreneurship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Je, Hae Gi

Dept. of International Trad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Since start-up is a matter of national economic and personal importance,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promote start-up. An individual's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and comparative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re are still different research results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attitudes of adult men and women.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he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individual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rough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Second, the effect of three individual competencies on achievement motivation, confidence,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investigated through covariate structure analysis(LISREL).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established in this study and th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was verifi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dult men and women residing across the country. The survey results of 500 people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ere used as data for this study. At this time, the subjects of the survey consisted of 250 males and females, 20% each in their 20s and 50s, and 30% each in their 30s and 40s.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First, men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starting a business, and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starting a business in the order of college graduate, graduate school, and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case of age, the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was more positive with age. In the case of pocket money and household income, the group with the highest level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starting a business. From this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rogram or strategy to have a positive entrepreneurial attitude targeting women, high school graduates, young adults, and adults with little pocket mone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men were more likely to start a business than women, and their parents encouraged

them to start a business. In additi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was higher when the age was high, when the reason for starting a business was a recommendation from the neighbors, and when the father was engaged in the distribution/service industry. In the case of personal and household income, the group with the middle income generally had a highe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This result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various fields that want to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women and young people, if their parents are engaged in a field other than distribution or service and do not recommend starting a business, a strategy is needed to increase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argeting people with low or high personal and household income.

Third, as a result of covariate structur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 individual competency characteristic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As a result, the higher the sense of achievement, the stronger the self-confidence, and the higher the self-efficacy in self-evaluation,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Also, it was found that a positive attitude toward starting a business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In other words, the more positive thinking about starting a business, the stronger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individual competencies such as achievement motivation, self-confidence, and self-efficacy on the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 group. The positive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wa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female group. In the end, it was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achievement motivation, confidence, and self-efficacy, especially for women.